

21장_움직이는 영화창작센터 ‘창시’

우리마을 영화 만들기

영화 만들기 제작일지

1.

7 월 23 일

마을사람 30 여 명이 마을회관에 모였다. 이번에 우리 마을에서 시도하는 영화 만들기의 사전 모임이다. 시나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기획 일정을 짰다. 1 년 전에 이미 ‘오리와 구둔역’이라는 단편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두들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영화제작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이미 영화제작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번에는 "레디, 액션!" 외쳐봐야지!

2

9월 25일

역시 마을회관에서 시나리오 기획회의가 열렸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의견은 겨울 한철 동안 마을회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에피소드를 모아서 구성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12 월 31 일 개봉 계획에 맞춰 제작과 촬영 일정을 의논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3

10 월 22 일

시나리오 1 차 안이 정리됐다. 주요 등장인물이 정해졌다. 모든 세대가 함께 볼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장의 이야기 열개가 만들어졌다.

‘어찌나 이야깃거리가 넘치는지 영화 열편은 더 만들어도 될 것 같다.’

4

11 월 20 일

드디어 줄거리가 완성됐다. 소녀와 소녀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 일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형식이다. 시나리오를 연기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사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배가 빨리 간다!’

영화 만들기 줄거리:

나는 4 학년,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녀

나는 할머니와 아빠와 산다. 오늘은 할머니가 한줌 가득 돼지고기를 싸가지고 오셨다. 마을회관 개관식이라는데, 그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추운 겨울 동안 밥해 먹기 싫은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오늘부터 점심을 마을회관에서 모조리 같이 해치우자고 선언하는 날이다.

매일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 먹는 것이다. 고생을 덜 해보겠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마을의 ‘겨울나기’ 풍습이다.

아빠는 우리 학교를 지나가는 철길에 간혹 나타나신다. 왜냐하면 그 철길로 10 분쯤 가면 긴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속의 겨울 고드름을 없애는 일이 아빠의 겨울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이다. 겨울 고드름을 하나하나 떼지 않으면 기차가 그 고드름과 부딪쳐서 망가진다고 한다. 하여튼 그게 또 내 입으로 들어가기에 처마 밑 고드름을 보면 나도 사정없이 떼버리는 버릇이 생겼다.

마을 회관으로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난리다.

“니네 할머니는 왜 당번 날만 안 나오냐.”

나한테 난리도 아니다. 나도 청소 당번하기 싫은데 할머니도 그런가 보다.

어느 날 무료 찜질방을 간다고 할머니들이 마을 앞에서 버스를 타신다. 그 날 밤 할머니는 금빛 색깔의 요 하나를 들여오셨다. 아빠 모르게 숨겨 놓았다가 결국엔 들켰다. 아빠는 다음 날 그 금빛 요를 들고 나가신다.

“고드름 같은 새끼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나가시더니 다시 들고 들어오시는 아빠.

나는 올해 70 세의 여자다

무료 찜질방 여자가 마을회관에 들어선다.

“찜질방 오픈을 맞이하여 마을 어르신 분들을 초대하러 합니다. 치매나 뇌졸중에 걸리기 쉬운 겨울에는 찜질이 최고예요!”

혹시 싶었지만 마을 앞에 버스까지 대절할 정도로 부자인 듯 보여 따라 나선 길이, 온열 시트를 파는 가게였다.

친절한 그 여자가 요리저리 돌봐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육신거리는 다리가 아들에게 못내 짐 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가수가 진짜로 노래를 부르는 방송국 가요무대 녹화장소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줬다.

마을 공공근로에 신체검사까지 한 덕분에 하루에 3 시간 동네 청소하는 돈벌이가 있어 한 달에 2 만 원은 충분히 내 힘으로 낼 수 있겠다 싶어 이불을 샀다.

그런데 아들에게 들켜버렸다.

나는 올해 40 대의 홀아비다

아내와 이혼하고 70 된 어머니와 딸 하나를 데리고 시골에서 산다.

100 미터 가량 되는 터널 위의 고드름을 4 미터 봉 하나 들고 아침부터 떼낸다.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기 그지없다. 어떤 때는 하나하나 떼어내기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 또한 생명의 탄생처럼 신비롭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드름이 내 머리로 떨어졌다. 한 동안 기절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소식이 없던 나를 찾으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겨우 기차를 피해서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뒤로 고드름의 신비는 깨어졌다

5

11 월 21 일

시나리오가 보완돼가고 있다. 장면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대사를 내놓는다. 3 세대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생활 속에서 건져낸 생생하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이 넘쳐 난다.

‘다들 일은 안 하고 대본 구상만 하는 모양이다.’

6

11 월 22 일

이야기를 장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영화
제작을 할 때 이 장면나누기가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한다.
공동작업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큰소리 한번 내는 법 없이 마음을 착착
맞추고 있다.

‘우리 마을 사람들처럼 순한 사람들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7

11 월 23 일

배역과 스태프가 결정됐다. 감독, 촬영, 동시녹음 등의 역할은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마이크 들고 있는 건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그것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8

11 월 24 일

촬영을 위한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소품 준비와 장소 섭외도 시작했다. 요즘
우리마을의 관심사는 오직 ‘영화 만들기’ 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싯적 꿈이 영화배우였단다!’

9

11 월 25 일

드디어 ‘크랭크 인’ 아니 ‘촬영 시작.’ 촬영한 장면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보았다.

‘다들 ‘화면빨’ 안 받는다고 투덜거린다. 실물 그대로 나오는데……’

10

11 월 27 일

그날 그날의 촬영 분을 매일 저녁 마을회관에서 함께 보다가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장면을 기록했는데 그 사진을 빔 프로젝터로 함께 보는 우리마을 사진전을 다음날 저녁에 열자는 것이다. ‘찍는 재미’와 ‘찍히는 재미’를 골고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매일 저녁 열리는 사진전에도 20 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밤 참여했다.

‘아, 못 말리는 우리 마을 사람들!’

11

11 월 28 일

사진전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매일 밤, 우리마을 영화관을 열기로 했다. 좋은 영화를 매일 밤 한 편씩 마을회관에서 상영한다.

영화 만들기를 주관하는 선생님들이 ‘레디, 액션!’ 대신 ‘준비, 시작!’ 이렇게 영어를 모두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셨다. 장면 번호를 적은 나무판을 원래는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딱딱이’로 부르기로 했다. ‘딱’ 소리가 나니까 ‘딱딱이’가 된 것이다. 그리고 ‘풀샷, 투샷’ 하는 말도 모두 ‘가슴 장면, 전체 장면’, ‘얼굴 장면’으로 바뀌 부르기로 했다. 너무 좋은 제안이다.

12

11 월 30 일

이야기를 만들던 중에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겠다고며 비디오를 보면서 춤을 배우는 장면이 있는데, 대사를 보완하던 차에, “우리도 춤 선생을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라는 대사가 추가됐다.

이 장면을 더욱 생생히 연출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영화 속에 진짜 춤 선생이 마을로 우연히 찾아 든다는 설정이 또 추가됐다. 내친김에 마을 사람들은 진짜 춤 선생을 섭외하기로 했다.

‘그럼, 이왕이면 전통 춤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

13

12 월 2 일

춤 선생님은 영화에 출연하라 전통 춤 가르치라 바쁘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춤 교양강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12 월 31 일 작품발표회를 겸한 잔치 때 전통춤 발표회도 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꿩 먹고 알 먹기라는 거다!’

14

12월 5일

전통 춤을 배우는 장면을 추가로 촬영하기로 했다. 밤이면 마을회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난방비도 아끼고 영화도 볼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5

12월 7일

가편집분 시사와 보충촬영을 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야외촬영을 마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최선을 다했다.

‘김장 때를 놓친 집들마다 토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래서 영화에 빠지면 집안이 편치가 않다는 건가 보다.’

16

12월 12일 - 12월 19일

실내 장면을 보충 촬영했다. 작품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작품발표회 준비도 해야 한다. 작품 상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절찬리에 전시됐던 사진전도 추가되고, 자서전 발표도 추가됐다. 내친 김에 배웠던 전통춤 공연도 펼쳐진단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졌다.

‘아, 한여름 농사짓는 것보다 바쁘다!’

17

12월 20일 - 12월 30일

가편집분 시사회가 끝나고 보충촬영이 계속됐다.

18

12월 31일

드디어 작품발표회가 열렸다. ‘새해맞이 축하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대하게 펼쳐졌다. 떡으로 만든 커다란 케이크 절단식도 하고, 특별 전통춤 공연도 벌어졌다. 물론 우리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만든 영화도 상영됐다. 이 명작을 못 본 분들은 무척 아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들은 ‘달빛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을같은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야외영화제로 상영이 된다니까, 부디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경기도 양평군 일신 2리 마을 주민들의 ‘우리마을 영화 만들기’

움직이는영화창작센터 창시